

윤관석 징역 2년... 대법, 민주 '돈봉투 의혹' 첫 유죄 확정

2021년 전당대회 앞두고 현역 의원들에 금품 수수 의혹 '이정근 녹취록' 신빙성 인정... 송영길 재판도 영향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재판에서 윤관석 전 국회의원에 유죄가 확정됐다. 지난해 4월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나온 대법원의 첫 유죄 판결로,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등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당내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한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윤 전 의원의 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고, 박씨는 2021년 4월 27~28일 300만원씩 돈 봉투 20개를 윤 전 의원에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의원은 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해 돈 봉투를 마련했을 뿐 지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았고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하다며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윤 전 의원이 구체적으로 제공 액수 등을 정하는 등 충분한 재량을 행사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윤 전 의원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하급심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취록을 유죄의 핵심 증거로 삼았다. 녹취록에서 윤 전 의원은 이 전 부총장에게 "의원이 많아서 다 정리를 해버렸는데 도자라", "인천 돌하고 원래 (...) 안 주려고 했는데 (...) 거기서 3개 뺐잖아" 등의 말을 했다. 이 전 부총장의 녹취록은 돈봉투 의혹 수사의 단초가 됐고 송 전 대표를 비롯한 다른 연루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가장 뚜렷한 증거로 평가받는다. 하급심 법원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이 녹취록의

신빙성이 인정된 셈이어서 수사·재판 중인 다른 사건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증거로 검토할지를 판단하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때 이어 더 나아가 이를 유죄의 증거로 쓰는 증명력까지 인정된 결과여서 같은 증거가 검토되는 여타 재판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마련한 6000만원이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2021년 4월 28~29일 이틀간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윤 전 의원과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 허종식 의원을 돈봉투 수수 혐의로 따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일제히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송 전 대표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 7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지만 대부분 의혹이 협조하지 않아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 윤 전 의원의 요구를 전달한 강래구 전 의원은 1·2심에서 총 1년 8개월의 징역형과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상고를 취하해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김여사 주가 조작 불기소 처분' 항고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오른쪽)과 황희석 변호사가 지난 31일 오후 검찰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장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하기 전 가진 기자회견 모습에 검찰청사 로비 유리에 투영돼 있다. /연합뉴스

“진보당 선전으로 호남 정치 변화... 대안정당 될 것”

김재연 대표 인터뷰... “중앙정치는 야권연대, 지방은 능력으로 경쟁”

진보당 김재연(사진) 상임대표는 10·16 재·보궐선거에 대해 “오랜 시간 민주당 일당 구도로 고착화되었던 호남 정치 지형의 변화를 예고하며 지역 유권자들의 기대를 모았다”고 평가했다. 김 상임대표는 지난 31일 광주일보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호남 정치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은 민주당으로 일색화 된 기득권 정치 질서였다”면서 “진보당이 대안정당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더욱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또 “진보당의 생활밀착형 풀뿌리 정치활동의 축적된 성과가 좋은 선거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호남 재선거 총평과 아쉬웠던 점은? ▲비록 낙선했지만 진보당 이색화 후보의 선전에 힘입어 진보당이 대안정당으로서의 경쟁력과 가능성을 인정받았다고 평가한다. 특히 오랜 시간 민주당 일당 구도로 고착화되었던 호남 정치 지형의 변화를 예고하며 지역 유권자들의 기대를 모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여긴다. 1년 7개월 임기의 군수를 뽑는 재선거였음에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중앙당 지도부들이 대선판을 방불케 하는 정치 공방을 벌였고 막판 선거 이슈가 '이재명 대표 지키기'로 흘러간 것은 아쉬운 지점이다. -영광 재선에서 진보당에 대한 지역민의 지지가 돋보였다.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진보당은 후보 선출대회 때부터 '남들이 돈을 뿌릴 때 우리는 땀을 뿌리자'라고 결심했다. '돈

으로 상징되는 구태 정치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진심과 정성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낮은 시선으로 살피고 세심하게 해결하고자 노력했고, 그런 과정에서 마을 청소, 농촌 일손 돕기 등 입소문을 뒀다. 거리에서 인사를 하더라도 홍보용 팸플릿만 들고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무거운 짐보따리부터 들어드리는 것이 진보당 당원들의 선거운동 모습이었다. 그렇게 몇 달간 지역주민들과 만나니 서로에게 정이 들어서 낙선 후 감사인사를 손편지로 써서 전달하는 당원들도 있었다. -진보당이 지방정치와 지방행정 혁신을 위해 해야 할 일은? ▲호남 정치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은 민주당으로 일색화 된 기득권 정치 질서였다. 이번 선거에서도 “민주당 군수를 찍어줘야 국회의원부터 지방의원까지 모두 힘 합쳐 예산 따올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수십 년간 그 주장으로 당선됐지만 지역 발전을 위해 똑바로 일하지 못했다. 당의 공천만 받으면 (심지어 무투표로도) 당선되니, 군민들 눈치 보면서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반면 진보당 지방의원들은 의회 내 소수에 불과하지만 지역의

크고 작은 민생 현안에 끈질기게 달려붙어 성과를 만들어낸다. 전남에서 시작된 '농민수당 도입'부터 최근의 '벼벌구 피해 재해 인정'에 이르기까지, 지역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정책 이슈로 만들어 정치 활동으로 풀어나가는 노력은 진보당의 강점이다. -호남 재선거를 통해 민주당과 진보당 등과 '야당 경쟁'을 해야 했다. 향후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이들 정당과의 관계 설정은? ▲윤석열 정권에 맞서는 중앙 정치 전선에서는 야권의 연대를 공고히 하고, 여당과 겨룰 필요가 없는 지역에서는 능력을 펼쳐 경쟁하는 것이 당연하다. -진보당은 과거 선거에서도 광주전남 광역·기초 의회에 잇따라 입성하는 등 성과를 내기도 했다. 내년 재선거에서의 '호남 성적표' 전망과 전략은? ▲이번 영광 재선거를 통해 호남정치 구도에서 제2당의 지위가 확고해진 만큼, 민주당의 낮은 득표율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정당으로 인정받기 위해 승부를 걸 것이다. 진보당의 생활밀착형 풀뿌리 정치활동의 축적된 성과가 좋은 선거 결과로 이어지리라 기대한다. -진보당이 광주전남을 겨냥한 이색적인 정책과 전략 등은 있는지? ▲몇해 전부터 광주전남에서 시작된 진보당의 '이색 현수막 정치'가 많은 주목과 호응을 받았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센 호남 민심을 꿰뚫은 문구가 속 시원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앞으로 전국적 민심을 선도하는 호남의 민심을 예리하게 살피고 발 빠른 전략으로 화답하겠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진보당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해 달라”

광주시당, 시의회서 참여 촉구... “전쟁 위기 고조·민생 파탄”

진보당 광주시당이 광주시민에게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촉구했다. 진보당 광주시당은 지난 31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헌법 유린으로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민생이 파탄에 이르는 등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다”며 “전국 각지에서 '이대로는 못 살겠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당은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반 동안 김건희 특검법에 무려 24번의 거부권이 행사됐다. 이중 5건은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특검 거부권 행사다. 명백한 권한 남용이자 삼권 분립을 무력화하는 헌법 유린”이라며 “김건희 도이치모터

스가 주가 조작 무혐의, 명태균 게이트 등 박근혜 정부를 능가하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보당 광주시당은 다음달 3일 오후 2시 증심사에 투표소를 설치한 뒤 자치구별 투표소 설치, 상가 방문 등을 통해 12월7일까지 투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투표 결과는 12월7일 서울에서 열리는 '윤석열 정권 퇴진 범국민 총궐기대회'에서 발표한다. 진보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투표가 법적·행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일차적으로 국민들 마음을 모아 국회에 민심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분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장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장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장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